

■ EU,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

- EU의 수송부 장관들은 지난 10월 2일, 2015년까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세계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제안함
 - 장관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달 런던에서 해양 안전 및 환경에 관해 논의할 IMO¹⁾ 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예정임
 - EU 수송부 집행위원은 IMO의 논의 내용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,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EU 역내에서의 일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것임을 표명함

- 최근 유조선의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해지자 단일선체 선박의 운항금지 기한인 2026년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됨
 - 지난 3월,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EU 역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일방적인 사용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
 - 해양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IMO는 집행위원회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당황함
 - 그러나, EU 유조선의 절반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는 이런 제안에 난색을 표해왔음
 -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5천 톤 이하의 유조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음

- 수송부 장관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해양 유류 오염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강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함
 - 해양안전을 위해 EU가 관할하는 새로운 통합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, 많은 회원국들이 현상유지가 최선임을 주장함
 - 최근 집행위원회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해양안전 관련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'EU 해양안전에 관한 위원회'²⁾ 구성을 제안한 바 있음

천정용(cildon@hanmir.com, 02-3669-4099)

1)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약자이며, 해양안전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UN 특별기구임

2) EU Committee on Maritime Safty